

채널 돌릴 때마다 '군포철쭉축제' 나온다

공중파·종편·케이블 등 역대급 방송 화제
빅데이터분석 통해 키워드관리 성과
SNS 검색 4월 축제 부문 최다 언급
132개 신문사기사화... 홍보 최고 실적



군포철쭉축제 현장 모습.

군포시 제공

군포철쭉축제가 역대급 방송노출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일 축제가 시작되고 공중파 KBS, SBS와 종편 OBS, YTN, 연합뉴스TV 케이블 방송 Btv에 연달아 소개되고 있다. 단신으로는 뉴스에 언급되는 수준에서 축제를 소개는 물론 군포소개 프로그램까지 이어져 군포시 브랜드 제고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간 현장 날개방송 중계나 1, 2개 방송노출은 있었지만 올해처럼 공중파와 종편 등 주요방송사 대부분이 군포철쭉축제를 소개한 것은 처음이다. 이같은 성황은 군포문화재단이 철쭉축제를 주관하지만 군포시의 홍보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안동광 부시장이 빅데이터분석을 통한 키워드관리를 지원했다.

전형상 홍보실장은 방송사 섭외를 시작으로 영상제공, 취재지원 등 전방위적인 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역대급 실적을 얻게 됐다. 이번 철쭉축제는 SNS 순위검색사이트에서 4월 축제부문에서 최다 언급되면서 홍보성공 조짐을 보였다. 지난해 지자체 SNS 홍보 대상을 받은 뉴미디어팀은 3월에 이미 긍정적인 소개 게시물이 조회수 35만이 넘는 등 역대급 성과를 바탕으로 축제마케팅에 든든한 기반이 됐다. 준비단계에서 축제 안내 보도자료는 4월

16일에 이미 132개 신문사에서 기사화됐다. 전형상 홍보실장은 "3월 초 '군포철쭉축제'라는 키워드만 제시했을 뿐인데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게 해 준 동료들이 고맙다. 특히 방송의 경우 적극적인 제안이 무엇보다 큰 결과로 이어지게 했다"고 말했다. 군포철쭉축제는 28일까지 이어진다. 산본신도시를 조성하고 남은 동산에 우거진 잡목을 걷어내고 꾸민 철쭉동산은 전라적으로 가장 오래가는 봄꽃 철쭉을 고른 덕에 오랫동안 꽃이 주는 위안을 즐길 수 있다. 최순철 기자

시흥시약사회, 취약층 아동 건강 위해 '4번째 마음' 전달

1%복지재단에 구충제 1500개 기탁
식욕부진·배앓이 등 예방 위한 지원



시흥시는 지난 23일 시흥시약사회에서 관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을 돕기 위해 구충제 1,500개를 시흥시 1%복지재단을 통해 기탁했다.

시흥시 제공

시흥시는 지난 23일 시흥시약사회에서 관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을 돕기 위해 구충제 1500개를 시흥시 1%복지재단을 통해 기탁했다고 밝혔다. 시흥시 약사회는 관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장학금과 의약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시흥시 보건소에 등록된 어르신들에게 실버카 20대를 전달하는 등 매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구충제 지원은 4년 연속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원된 구충제는 관내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전달돼 기생충으로 인한 식욕부

진과 배앓이 등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광기혁 시흥시 약사회장은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재홍 시흥시 복지국장은 "시흥시의 아이들에게 매년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드림스타트 아이들과 그 가족에게 잘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원규 기자

양주 남면사무소 정현태, 신속처치로 뇌출혈 환자 구해

(산업팀장)

경련 증상 보이며 쓰러진 주민 발견
119 신고 후 기도 확보 등 호흡 도와
사고자, 의식 회복 후 감사 인사 전달

이에 정 팀장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 의식 불명인 A씨의 후두부에 받쳐 기도를 확보해 호흡을 유지시키며 환자의 팔다리를 주무르고 지속적인 말걸기를 시도했다.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자 재차 119상황실과 통화를 유지하며 맥박과 호흡 상황을 전달했고 인근 구급차의 부재로 20여분 지체된 상황에서 침착하게 현장 수습을 이어갔다. 구급차가 도착하자 119대원은 뇌경색으로 의식이 불명확한 상태에서도 20여 분간 상황실과 통화를 유지해 환자의 상태가 호전됐다고 말했다. 이후 의식이 회복된 A씨는 인근 주민에 의해 보호자가 확인됐고 아버지의 신원을 확보한 119구급대에 의해 후송시 보호자를 대동시켜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후송된 J씨는 기존에 지병으로 뇌출혈을 보유한 장애인으로 보행중 양다리 경련으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고 환자의 사고전 지병을 감안해 상당히 위험했던 상황이었다. 현재 사고자 A씨는 보호자가 남면행정복지센터로 전화를 걸어와 신속한 응급조치로 인해 치료를 잘받고 퇴원해 집에서 가료 중이라며 정현태 팀장과 남면사무소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알렸다. 백은구 남면장은 "남면주민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지만 정현태 팀장의 솜씨수범으로 주민의 생명을 구하는데 앞장서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직원들 모두가 환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는 만큼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민 기자

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 모니터링단 위촉

(학교급식)

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는 '2024년 학교급식 모니터링단 위촉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새로 위촉된 모니터링단은 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부모와 시민 등 총 14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내년 3월까지 ▲학교급식 업체 점검 ▲바른 식생활 연수 ▲식재료 꾸러미 체험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박미진 센터장은 "앞으로 학교급식 모니터링단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송경식 기자

신종사기 예방을 위해 필요한 모두의 노력

■기고

이원빈

하남경찰서 경무과 경장



난 2월 7일에는 윤호근 경찰청장이 '국민체감 약속 4호'를 발표했다. '국민체감 약속 4호'는 투자 리딩방 사기, 암호화폐 금융사기 등 신종사기 범죄에 총력을 다해 이를 막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겠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피싱 범죄 등 사기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 이해도가 높은 형사 부서로 업무를 이관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 목소리와 얼굴을 바꿔 유명인사를 사칭하는 신종 피싱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새로운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남경찰서는 최근 '범죄예방 60초 AI피싱'을 제작·배포하고 장애인 시설 및 노인정 등을 방문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종사기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법 투자리딩방 등 신종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 외에도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광고를 노출하는 기업들은 사전 필터링을 강화해 유명인 사칭 광고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개인 투자자들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명언을 가슴에 새기고 '투자 손실 보장', '수익 보장'과 같은 달콤한 유혹을 과감히 뿌리쳐야 한다. 불법 투자리딩방으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하는 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성남교육청, 성대한 학교스포츠클럽 축제 연다

관내 103개 초·중·고 4760여 명 참여
축구·넷볼 등 지정·비지정 종목 운영



배드민턴 대회 참가자들이 대회 전 주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성남교육지원청 제공

성남교육지원청은 성남지역 초·중·고등학교 103학교가 참여하는 학교스포츠클럽 축제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학교 체육 활성화로 인성교육이 강화된다는 취지로 농구, 피구, 탁구 등 총 7개의 지정 종목과 플라이디스크, 플로어볼, 넷볼 등 소규모 비지정 종목을 운영하며, 지난 23일 배드민턴 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7월 14일 배구 결선까지 103교, 337팀, 4760여 명이 참여해 성대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학생들의 참여가 가장 높은 축구 종목은 총 5일간 예선 리그전 및 본선 경기를 치른 후 중학교 결승전은 6월 15일 진행되는 성남FC 경기의 사전경기로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진행하며, 줄넘기는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학생들이 제출한 영상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사전경기 후 7월 6일 보평중학교 체육관에서 본선을 운영한다. 김대서 기자

지역 발전 앞장설 하남 '위레드림봉사단' 출범

발대식서 '시민 중심 봉사 문화 선도' 제시
제설 활동 등 쾌적한 환경 조성 '노력'



24일 위레드림봉사단 출범식에서 봉사단원들의 모습.

하남시 제공

하남시는 지난 24일 지역사회 각종 자원봉사 문화 캠페인 등에 앞장설 위레드림봉사단(봉사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날 위레드림봉사단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이현재 하남시장과 강성삼 시의회 의장, 위레드림 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사단은 '시민 중심의 봉사 문화 선도'라는 활동 목표를 제시했다. 봉사단은 위레드림의 환경개선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목표로 기존에 각종 민간단체별로 활동하던 것을 공동으로 연합해 위레드림 일반주민과 유관단체 회원 96명으로 구성됐다. 봉사단은 이날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서약서 낭독 및 활동계획과 자원봉사 교육 등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 의지를 다졌다. 봉사단은 오는 25일 학업전 철결 활동을 시작으로 ▲환경정화 활동 ▲겨울철 구역별 제설 활동 ▲어름철 호우 피해 예방 활동 등 정

가.특별 봉사를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 환경 조성에 앞장서게 된다. 이들은 "앞으로 하남 위레드림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이 직접 주도하는 모범적인 단체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재 시장은 발대식을 통해 "살고 싶은 도시 하남 위레드림을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단체장과 단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라며 "하남시는 위레드림봉사단의 성숙한 봉사 문화가 지역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태호 기자